

2006년 아시아발 유럽항로의 컨테이너물동량은 2006년에 14.3% 증가하는데 비해 선박공급량은 15.1% 증가, 공급이 수요를 다소 초과할 것으로 추산했다. 그러나, 2007년에는 물동량 증가율은 14.6%에 달하는데 비해 선박공급 증가율은 13.7%를 기록,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분석했다.

그리고, 2008년에는 물동량 증가율이 12.3%를

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반해 선박공급 증가율은 9.9%에 그쳐 선복수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진단했다.

이와는 달리 유럽발 아시아항은 물동량 증가율이 2006년 5.3%, 2007년 6.8%, 2008년 6.5% 등으로 부진한데 반해 선박공급 증가율은 2006년 12.4%, 2007년 14.8%, 2008년 10.8% 등으로 선복수급이 점차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.

## 홍콩 화주협회와 터미널업체 보안료부과 합의 화주들이 직접 터미널 운영회사에 납부기로

중국이 지난 6월1일부터 항만보안료(Port Security Charges)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, 홍콩 화주협회와 터미널 운영업체들은 최근 8월15일부터 항만 보안료를 부과, 납부하기로 합의했다.

이들 양 기관은 최근 공동으로 체결한 협정에서 20피트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20홍콩달러(\$2.6), 40피트 컨테이너는 30홍콩달러(\$3.9) 씩을 선사를 거치지 않고 화주들이 직접 터미널 운영회사에 납부하기로 했다.

또 두 기관은 화주들이 납부하는 항만보안료는 2004년 7월 1일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 규칙(ISPS Code)을 이행하는데 전액 사용하기로 하고, 항만보안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구체적인 비용 사용내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.

이같은 협정을 체결하면서 터미널 운영업체들은 홍콩 화주 협회에 행정비용 명목으로 컨테이너당 2 홍콩 달러(\$0.26)를 돌려주기로 하는 한편, 화주들이 쿠폰을 사서 항만 보안료를 납부하거나

트레이드 링크와 같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2 홍콩 달러를 깎아 주는 인센티브제도도 도입했다.

홍콩에는 현재 모던터미널 등 모두 5개의 터미널 운영업체가 있는데, 이들 업체들은 연간 3,140만 달러에 달하는 항만 보안료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.

홍콩의 경우 2005년에 컨테이너 2,240만TEU를 처리했는데, 공컨테이너와 환적화물에 대해서는 항만 보안료가 부과되지 않는다.

홍콩 항만에서 화주들과 터미널 운영업체들이 합의를 통해 항만 보안료 부과 문제를 해결한 것은 그동안 이 비용의 징수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의구심을 해소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
화주들은 항만보안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으나 징수한 금액 전액이 보안 장비를 설치하고, 운영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.